

제63호(2019. 6. 14.)

#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농식품 분야 파급영향

문한필 박지원 한봉희 윤정현 명수환



목 차  
contents

- 1. 미중 무역전쟁 개요 및 농식품 관세부과 추이 ..... 1
- 2. 무역전쟁 전후 미중 농식품 교역 변화 ..... 4
- 3. 세계 대두시장 파급영향 ..... 9
- 4. 미중 돼지고기 교역 변화와 국내 수급 영향 ..... 13

감 수	김상현 부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내 용 문 의	문한필 연구위원	061-820-2259	hanpil@krei.re.kr
출 판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63호

### 미·중 무역전쟁 현황과 국내 농식품 분야 파급 영향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6.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요약 Summary

- 올 초부터 진행된 미중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타파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금지,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이행조항(법 개정)을 명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은 수용하지 않음.
  - 결국, 미국은 지난해 9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던 5,747개 품목에 대해 올해 5월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물량부터 25%로 인상된 추가관세를 적용
  - 중국 또한 6월 1일부터 5,140개 품목의 추가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
- 양국 간 농식품에 대한 관세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산 농식품 729개 세번에 대한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중국은 네 차례의 보복관세 조치마다 추가관세 품목리스트에 농식품 세번을 포함시켜 현재 956개 세번에 대해 5~5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상태
  -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농식품(729개)의 2016~17년 중국산 수입액은 50억 달러이며(미국의 해당품목 대세계 수입액의 4%), 중국의 대미국 관세부과 농식품(956개)의 2016~17년 미국산 수입액은 256억 달러임(중국의 해당품목 대세계 수입액의 21%).
-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신선 농축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와 돼지고기의 경우 2008년 대미 수입액이 전년대비 50% 가량 감소했으며, 수수, 양조박, 밀, 유장, 체리, 옥수수, 포도, 포도주 등의 대미 수입액도 큰 폭으로 감소
  -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산 식품에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기간은 10~12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국 연차별 수입변화는 큰 변동 없음.
-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우리가 중국에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벨류체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농식품의 대미시장 수출감소가 국내 농업이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 오히려 미국산(중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중국(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경우, 원료가격의 하락이나 중국시장(미국시장)에서 미국산(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한·미 FTA와 한·중 FTA에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의 대미, 대중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려왔으며, 채유용과 대두박의 올해 가을 국내 도착분에 대한 구매가 완료된 상태임. 국제가격의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대두를 활용한 식품가격의 하락, 관련 가공식품의 수출확대, 돼지 사료비용 인하 등의 효과 기대
  - 돼지고기 또한 기수입된 재고물량이 많고, 국내 사육두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입증가로 국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 01 | 미중 무역전쟁 개요 및 농식품 관세부과 추이

-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 해소와 불공정한 무역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국영기업의 특혜적 지위 등)의 시정을 요구하며 강경한 통상압박을 지속함.
- 미국은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무역법 232조에 근거하여 중국을 포함한 주요 상대국의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통상갈등이 점화되었으며, 2018년 7월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1차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 이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양국은 상호 보복조치 취함.
- 2018년 12월 1일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90일간 협상 기간을 갖기로 합의하고, 최근 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2019년 5월 초) 양국은 다시 상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불공정한 무역관행 타파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금지,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이행조항(법 개정)을 명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은 수용하지 않음.
  - 결국, 미국은 지난해 9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던 5,747개 품목에 대해 5월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물량부터 25%로 인상된 추가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도 6월 1일부터 5,140개 품목의 추가관세를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맞대응을 함.<sup>1)</sup>
    - 이에 미국은 나머지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절차를 개시함.

〈표 1〉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관세부과) 추이

관련 통상법	미 국			중 국		
	규모 (세번/달러)	대상품목	추가관세	규모 (세번/달러)	대상품목	보복관세
232조 ('18.4)	-	철강	25%	128개 (28.7억)	농축산물, 강관 등(120개)	15%
		알루미늄	10%		돈육가공품, 재생알루미늄 등(8개)	25%
301조 1차 ('18.7)	818개 (326억)	원자료,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카메라, 의료기기 등	25%	545개 (338억)	농축산물, 수산물, 자동차 등	25%
2차 ('18.8)	279개 (136억)	반도체, 전자담배 등	25%	333개 (141억)	화학, 에너지, 의료제품, 트랙터, 트럭 등	25%
3차 ('18.9)	5,747개 (1,905억)	냉장고, 건조기, 타이어, 농축산물 등	10%	5,207개 (534억)	쇠고기, 연어, 티타늄제품, 섬유제품 등	5%, 10%
4차 ('19.5)	"	"	25%	5,140개 (600억)	" (일부 품목 변화)	5%, 10%, 20%, 25%

자료: 농업전망 2019(KREI)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중국은 2018년 9월 기준에 5~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던 5,207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올리되, 자국 산업에는 피해가 크지 않고 미국 이외 타국에서 수입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품목(2,493개)은 25%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품목은 20% 이하로 인상 (1,078개 20%, 974개 10%, 595개 5%)

- 미·중 양국은 관세부과를 넘어 환율조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등 ‘거래제한기업’ 명단 작성(이상 미국), 미국산 대두 수입중단, 희토류 수출규제, FedEx 조사 및 중국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작성(이상 중국) 등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

□ 대중 수입이 수출보다 큰 미국은 지난 1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차례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동안, 관세부과 품목을 확대함으로써(공산품→농식품) 대중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간 반면, 대미 수입품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중국은 관세부과 품목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이들 품목에 부과한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복조치를 취함.

- (미국, 중국산 농식품 729개 세번에 추가관세 부과) 미국은 301조에 따라 2018년 9월 24일 발효된 추가관세 품목리스트에 처음으로 729개 농식품 세번을 포함시킴. 이는 최근(2016~17년) 중국의 대미 농식품 수출품목의 72%(세번 수 기준)에 해당
  - 2018년 9월 당시 추가관세는 10%였으나, 2019년 5월 10일부터는(중국 출발 기준) 25%로 인상됨.
  - 미국의 2016~2017년 중국산 농식품 평균 수입액은 52.3억 달러이며, 이 중 관세부과 품목의 수입액은 50억 달러(대세계 수입액의 3.8%)로 95.5%에 달함. 2)

〈표 2〉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수준

세번 수 (HS 8단위)	품목 (괄호 안은 HS 8단위 세번 수)	232조 대응 보복관세 (‘18.4.2)	301조 대응 보복관세 * (‘19.6.1)	최종 적용 관세율
1	햄(02031200)	25%	25%	MFN+50%
6	돼지고기(02064900, 02032900) 등	25%	25%	MFN+50%
5	포도주(22041000, 22042100, 22042900) 냉동 베리류(08112000, 08119090)	15%	25%	MFN+40%
74	과실견과류 에탄올(22072000)	15%	25%	MFN+40%
1	냉동 베리류(08111000)	15%	20%	MFN+35%
201	대두(12019010), 수수(10079000) 등		25%	MFN+25%
224	기타견과류(20081999) 양장(05040011) 등		25%	MFN+25%
10	원목(44032190), 면(52029100) 등		25%	MFN+25%
2	인삼(12112010), 포도주(22042200)	15%	10%	MFN+25%
38	생모피(43011000), 땅콩(12024200) 등		20%	MFN+20%
5	인삼(12112091, 12112099) 포도주(22043000) 냉동 베리류(08121000, 08129000) 등	15%		MFN+15%
239	원목(44039100), 대두유(15071000) 등		15%	MFN+15%
128	감자(20041000), 전분(35051000) 등		10%	MFN+10%
22	소원피(41015019), 난백(35021100) 등		5%	MFN+5%
956				

주: 301조 대응 보복관세는 총 4차례(‘18년 7월, ‘18년 8월, ‘18년 9월, ‘19년 6월) 부과됐으며, 이를 모두 합한 추가관세임.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CH18017(2018.4.2), CH18034(2018.6.21), CH18047(2018.8.9) CH18061(2018.9.25), CH19030(2019.5.17)

2) 2018년도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부과 농식품(729개 세번) 수입액은 59.2억 달러로 전년(53.4억 달러)보다 증가함.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로 미국산 농식품에는  
최대 'MFN 관세율+50%'의 수입관세가 적용(돼지고기, 햄)

□ (중국, 미국산 농식품 956개 세번에 추가관세 부과) 중국은 네 차례의 보복관세 조치(2018년 4월 2일, 7월 6일, 9월 24일, 2019년 6월 1일)마다 추가관세 품목리스트에 농식품 세번을 포함시킴.

- 이들 956개 세번의 2016~17년 미국산 수입액(255.7억 달러)은 중국의 대세계 수입액의 약 20.9%를 차지.<sup>3)</sup> 품목이 각각의 리스트에 중복될 경우, 추가관세는 합산하여 적용됨(표 2 참조).
  - 2019년 6월 1일에 5~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농식품은 653개임(표 3 참조).
- 동기간 중국의 대미 농식품 수입액의 약 71%는 대두이며, 가장 수입액이 큰 미국산 대두에는 2018년 7월 6일 시행된 보복조치에 따라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됨.
  - 특히, 돼지고기 6개 세번(02031900, 02064100 등)에는 미국의 232조 조치에 따른 25% 보복관세(2018년 4월 2일), 301조 조치에 따른 25% 보복관세(2018년 7월 6일)가 부과됨에 따라 현재 'MFN(12%)+5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표 3〉 중국의 대미 농식품 보복관세 부과 추이(시점별)

세번 수 (HS 8단위)	품목 (괄호 안은 HS 8단위 세번 수)	232조	301조 보복관세			최종 적용 관세율	
		보복관세 (‘18.4.2)	(‘18.7.6)	(‘18.8.9)	(‘18.9.25)		(‘19.6.1)
1	햄(02031200)	25%				25%	MFN+50%
6	돼지고기(02064900, 02032900) 등	25%	25%				MFN+50%
5	포도주(22041000, 22042100, 22042900), 냉동베리류(08112000, 08119090)	15%			25%		MFN+40%
74	과실견과류, 에탄올(22072000)	15%	25%				MFN+40%
1	냉동베리류(08111000)	15%			10%	10%	MFN+35%
201	대두(12019010), 수수(10079000) 등		25%				MFN+25%
224	기타견과류(20081999), 양장(05040011) 등					25%	MFN+25%
10	원목(44032190), 면(52029100) 등			25%			MFN+25%
2	인삼(12112010), 포도주(22042200)	15%			5%		MFN+20%
38	생모피(43011000), 땅콩(12024200) 등					20%	MFN+20%
5	인삼(12112091, 12112099) 포도주(22043000), 냉동베리류(08121000, 08129000) 등	15%					MFN+15%
239	원목(44039100), 대두유(15071000) 등					15%	MFN+15%
128	감자(20041000), 전분(35051000) 등					10%	MFN+10%
22	소원피(41015019), 난백(35021100) 등					5%	MFN+5%
956							

주: 〈표 2〉의 301조 대응 보복관세를 부과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

자료: USDA FAS, Grain Report CH18017(2018.4.2), CH18034(2018.6.21), CH18047(2018.8.9) CH18061(2018.9.25), CH19030(2019.5.17)

3) 2018년도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농식품(956개 세번) 수입액은 178.4억 달러로 전년(255.1억 달러)대비 30% 감소함.

## 02 | 무역전쟁 전후 미중 농식품 교역 변화

### 2018년 중국의 대두와 돼지고기 대미 수입액은 전년대비 50% 가량 감소

□ 농식품 교역의 경우, 중국은 대미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2017년 수입 206억 달러, 수출 58억 달러),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국 수입의존도가 2배가량 높음.

- 무역 갈등 이전 최근 3년 동안(2015~2017) 중국의 농식품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8%인 반면,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임.
- 2017년 기준, 중국의 관세부과 품목 중에서 대미 수입액이 가장 큰 농산물은 대두로 수입액이 138.6억 달러에 달함(대미수입의 70.5%를 차지). 다음으로 돼지고기(6.4%), 수수(5.6%), 면화(3.8%) 순으로 수입규모가 큼.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주요 대두 생산지역이라는 점과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이 두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함.

### □ 2018년 중국의 대두와 돼지고기 대미 수입액은 전년대비 50% 가량 감소

- 이외에도 2017년과 비교하여 수수, 양조박, 밀, 유장, 체리, 옥수수, 포도, 포도주 등 대다수 품목의 대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표 4 참조). 실제 보복관세가 부과된 기간은 수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대두와 돼지고기의 경우, 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자 교역국이며, 중국의 대 세계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부과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한국 또한 이들 품목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미국의 관세부과 품목 중에서 대중국 수입액이 가장 큰 농산물은 간장, 조분, 대두박, 채소주스, 기타 과실음료 등 대부분 가공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18년에 실제 10%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기간은 10월~12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차별 수입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대두박, 채소의 박류, 토끼고기, 녹두, 밤, 생강뿌리 등 일부 품목에서는 전년대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표 5 참조).



〈표 4〉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품목의 수입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번호	품목				2017년			2018년			'17-'18 대미국 수입액 변화율 (B→D)	'17-'18 대미국 수입 비중 변화 (E→F)
	품목명	HS코드	MFN 관세율	미국산 관세율	대세계 수입액 (A)	대미국 수입액 (B)	비중 (E=B/A)	대세계 수입액 (C)	대미국 수입액 (D)	비중 (F=D/C)		
1	대두	12019010	3	28	39,736	13,959	35.1	38,088	7,065	18.5	-49.4	-16.6
2	면화	52010000	40(1)	65(26)	4,364	1,960	44.9	6,331	2,127	33.6	8.5	-11.3
3	돼지고기	02064900	12	62	2,113	874	41.4	1,517	344	22.7	-60.7	-18.7
		02032900	12	62	1,521	168	11.0	1,512	77	5.1	-54.1	-5.9
		02032200	12	62	698	118	16.9	562	52	9.3	-55.5	-7.5
4	수수	10079000	2	27	1,025	956	93.3	857	726	84.7	-24.0	-8.5
5	기타사료	12149000	7	32	515	399	77.4	526	383	72.9	-3.9	-4.6
6	밀	10011900	65(1)	90(26)	507	289	57.1	575	105	18.2	-63.9	-38.9
		10019900	65(1)	90(26)	525	102	19.4	206	8	4.0	-91.8	-15.3
7	잎담배	24012010	10	35	2,368	335	14.1	2,078	320	15.4	-4.4	1.3
8	유장	04041000	2	27	655	281	42.8	622	205	33.0	-26.8	-9.8
9	피스타치오	08025100	5	45	181	175	97.1	350	303	86.6	72.8	-10.5
10	체리	08092900	10	50	769	170	22.2	1,303	100	7.7	-41.4	-14.5
11	옥수수	10059000	65(1)	90(26)	600	160	26.7	782	69	8.8	-57.0	-17.9
12	양조박	23033000	5	30	135	133	98.8	72	71	98.6	-46.6	-0.2
13	아몬드	08021200	10	50	71	68	96.3	135	84	62.2	22.8	-34.1
		08021100	10	50	25	25	100.0	68	40	57.7	60.6	-42.3
14	오렌지	08051000	11	51	382	87	22.7	437	85	19.4	-2.1	-3.3
15	포도주	22042100	14	29	2,554	76	3.0	2,574	70	2.7	-7.9	-0.3
		22042900	20	35	159	2	1.3	187	0	0.2	-85.7	-1.2
		외 3개	14-30	29-45	86	6	6.9	6	6	100.0	-1.7	93.1
16	분유	04021000	10	35	600	60	9.9	609	39	6.5	-34.1	-3.5
		04022100	10	35	1,513	23	1.5	1,747	25	1.4	8.1	-0.1
17	포도	08061000	13	53	588	52	8.8	586	32	5.5	-37.6	-3.3
		08062000	10	50	44	20	45.2	53	15	29.1	-21.8	-16.1
18	개사료	23091090	4	29	115	49	42.6	283	83	29.3	68.7	-13.3
19	치즈	04062000	8	33	112	24	21.8	135	24	17.9	-0.8	-3.9
		04069000	8	33	116	22	18.5	122	23	18.7	5.6	0.1
20	사과	08081000	10	50	115	45	39.4	117	29	24.7	-36.1	-14.7
21	크렌베리	20089300	15	40	51	44	85.8	66	55	83.3	26.8	-2.5
22	호두	08023200	20	60	18	18	96.2	20	19	97.0	9.1	0.8
		08023100	25	65	16	12	78.7	14	7	51.0	-40.2	-27.7
23	자두	08094000	10	50	103	28	26.7	118	16	13.5	-42.4	-13.2
24	기타견과류	08029090	24	47	165	23	14.2	174	32	18.1	35.0	3.9
25	쇠고기	02023000	12	37	2,703	18	0.7	4,240	54	1.3	194.6	0.6
		02013000	12	37	67	5	7.0	130	4	2.7	-25.5	-4.3
26	완두	07131090	5	30	430	22	5.2	612	6	0.9	-74.6	-4.3
27	마카다미아	08026190	12	52	84	18	21.9	73	14	18.7	-25.5	-3.2
28	인삼류	12112010	7.5	22.5	39	14	35.6	35	14	39.9	2.9	4.4
		외 2개	20	30	14		0.0	17		0.0	.	0.0
29	냉동베리류	08119090	30	45	130	4	2.8	213	1	0.7	-62.2	-2.2
		08111000	30	45	20	2	9.3	28	4	12.7	84.2	3.4
		외 3개	25-30	40-45	5	0	0.0	0	0	0.0	.	0.0
30	에틸알코올	22072000	5	70	10	0	4.2	717	454	63.3	113,400.0	59.1
합계					66,046	20,845	31.6	68,898	13,190	19.1	-36.7	-12.4

주1)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농축산물 품목 가운데 2017년 수입액이 천 달러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정리함.

2) 관세율 중 괄호 안은 TRQ 이내 물량, 괄호 밖은 TRQ이외에 물량에 대한 관세율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편집.

〈표 5〉 미국의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 변화

단위: 천 달러

HS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17-'18 대중국 수입액 변화율(%)	'17-'18 대중국 수입비중 변화(%)p
		대세계 수입액 (A)	대중국 수입액 (B)	비중 (B/A)	대세계 수입액 (A)	대중국 수입액 (B)	비중 (B/A)		
2103100000	간장	101,653	39,311	38.7	112,076	47,569	42.4	21.0	3.8
1106209000	괴경분과 조분	52,700	35,593	67.5	75,732	49,699	65.6	39.6	-1.9
0106110000	영장류	53,037	34,953	65.9	69,876	45,805	65.6	31.0	-0.4
2304000000	대두박	158,520	33,039	20.8	239,430	28,876	12.1	-12.6	-8.8
1804000000	코코아버터	595,129	26,109	4.4	619,949	24,582	4.0	-5.8	-0.4
2009892000	채소주스	34,621	21,752	62.8	36,430	24,498	67.2	12.6	4.4
2202999000	기타 과실음료	829,889	21,283	2.6	758,695	22,291	2.9	4.7	0.4
0902400000	홍차	195,485	20,648	10.6	183,750	19,441	10.6	-5.8	0.0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	549,761	17,779	3.2	564,331	17,116	3.0	-3.7	-0.2
0710300000	시금치류(냉동)	40,614	16,677	41.1	44,551	17,280	38.8	3.6	-2.3
2302500000	채두류의 박	27,818	15,970	57.4	26,882	9,982	37.1	-37.5	-20.3
0712901000	건조당근	22,918	14,632	63.8	25,450	16,027	63.0	9.5	-0.9
1704100000	추잉검	117,436	14,140	12.0	118,938	12,225	10.3	-13.5	-1.8
1702909000	기타당류	93,342	10,905	11.7	107,726	13,654	12.7	25.2	1.0
0813300000	건조사과	38,396	10,337	26.9	40,706	12,031	29.6	16.4	2.6
0502100000	돼지털	9,190	9,094	99.0	7,737	7,665	99.1	-15.7	0.1
1905901050	쌀과자	430,291	8,439	2.0	457,169	9,757	2.1	15.6	0.2
1302120000	감초엑기스	19,289	7,118	36.9	26,660	11,714	43.9	64.6	7.0
0712311000	아가리쿠스속버섯 (건조)	8,383	6,935	82.7	8,227	7,202	87.5	3.9	4.8
0713311000	종자용녹두	7,950	6,588	82.9	6,790	4,877	71.8	-26.0	-11.0
0709599000	기타버섯(신선)	23,287	5,926	25.4	28,034	6,761	24.1	14.1	-1.3
0407900000	기타신선란	7,814	5,619	71.9	7,779	5,771	74.2	2.7	2.3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	40,821	5,430	13.3	41,370	6,983	16.9	28.6	3.6
1905400000	러스크	76,618	5,409	7.1	103,136	8,603	8.3	59.0	1.3
0602909090	기타산식물	75,450	5,186	6.9	80,926	6,972	8.6	34.4	1.7
1505009000	올그리스	21,771	4,268	19.6	21,637	5,777	26.7	35.3	7.1
0208100000	토끼고기	4,819	3,967	82.3	5,481	3,323	60.6	-16.2	-21.7
0904120000	후추(분쇄한 것)	103,051	3,872	3.8	83,606	4,620	5.5	19.3	1.8
2303300000	양조박	50,422	3,791	7.5	61,852	4,318	7.0	13.9	-0.5
2005400000	완두(기타조제)	17,930	3,721	20.8	17,474	3,838	22.0	3.1	1.2
0813409000	기타건조과실	13,566	3,387	25.0	23,001	13,111	57.0	287.1	32.0
1302200000	펙틴질	110,865	3,385	3.1	105,955	3,710	3.5	9.6	0.4
1515500000	참기름	86,919	3,337	3.8	96,093	4,054	4.2	21.5	0.4
2306410000	유채씨유박	862,756	3,287	0.4	927,247	4,353	0.5	32.4	0.1
0802410000	밤(미탈각)	13,837	3,159	22.8	12,040	2,312	19.2	-26.8	-3.6
2006003000	생강뿌리(당절임)	10,635	3,036	28.5	9,945	2,856	28.7	-5.9	0.2

주: 2017년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이 3백만 달러 이상인 실적만 나타냄. 색깔 표시된 세번은 2018년 9월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가 부과된 품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미국시장에서 일부 농식품의 경우,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

- 현재 미국시장으로 중국과 한국이 모두 일정규모 이상 수출하고 있는 품목(세번)은 간장, 홍차, 베이커리제품, 추잉검, 기타당류, 쌀과자, 버섯류, 러스크, 기타 건조과실, 참기름, 밤, 유자제조품 등임(표 6 참조).

- 즉, 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중국산 농식품의 수입관세는 이미 10%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월부터는 25%로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더욱이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품목들의 관세도 인상될 가능성이 큼), 미국시장에서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농식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표 6〉 미국 농식품 수입시장 내 중국과 한국의 경합 품목

단위: 천 달러, \$/kg

HS코드	품목명	2017년					2018년				
		대세계	대중국		대한국		대세계	대중국		대한국	
		수입액	수입액	수입단가	수입액	수입단가	수입액	수입액	수입단가	수입액	수입단가
2103100000	간장	101,653	39,311 (38.7)	1.11	2,811 (2.8)	1.07	112,076	47,569 (42.4)	1.10	3,010 (2.7)	1.16
0902400000	홍차	195,485	20,648 (10.6)	2.75	294 (0.2)	3.26	183,750	19,441 (10.6)	2.90	484 (0.3)	6.56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	549,761	17,779 (3.2)	2.84	18,019 (3.3)	5.26	564,331	17,116 (3.0)	2.72	15,177 (2.7)	5.44
1704100000	추잉검	117,436	14,140 (12.0)	5.47	450 (0.4)	19.75	118,938	12,225 (10.3)	5.43	508 (0.4)	22.74
1702909000	기타당류	93,342	10,905 (11.7)	1.75	467 (0.5)	1.40	107,726	13,654 (12.7)	1.62	436 (0.4)	1.48
1905901050	쌀과자	430,291	8,439 (2.0)	5.07	3,063 (0.7)	4.61	457,169	9,757 (2.1)	5.02	4,306 (0.9)	4.52
0712311000	아가리쿠스속 버섯(건조)	8,383	6,935 (82.7)	9.98	159 (1.9)	29.34	8,227	7,202 (87.5)	9.37	141 (1.7)	29.28
0709599000	기타버섯 (신선)	23,287	5,926 (25.4)	1.51	11,196 (48.1)	2.08	28,034	6,761 (24.1)	1.71	12,153 (43.3)	2.15
1905400000	러스크	76,618	5,409 (7.1)	14.06	484 (0.6)	3.78	103,136	8,603 (8.3)	14.68	667 (0.6)	3.50
0813409000	기타 건조과실	13,566	3,387 (25.0)	5.45	697 (5.1)	12.17	23,001	13,111 (57.0)	10.00	1,045 (4.5)	14.71
1515500000	참기름	86,919	3,337 (3.8)	5.15	1,307 (1.5)	9.59	96,093	4,054 (4.2)	4.99	1,530 (1.6)	7.66
0802410000	밤(미탈각)	13,837	3,159 (22.8)	2.16	1,289 (9.3)	3.68	12,040	2,312 (19.2)	1.67	1,902 (15.8)	4.06
1704909000	기타 설탕과자	16,134	1,086 (6.7)	3.00	132 (0.8)	5.97	17,917	376 (2.1)	3.71	157 (0.9)	4.98
2008301000	유자 (기타조제)	3,262	431 (13.2)	1.34	1,854 (56.8)	3.57	6,754	1,068 (15.8)	1.93	3,834 (56.8)	3.62
2101209000	차, 마태 조제품	14,589	311 (2.1)	2.09	279 (1.9)	4.55	11,715	534 (4.6)	1.66	179 (1.5)	12.16
0706902000	무	29,752	74 (0.2)	0.96	1,261 (1.9)	0.75	32,331	76 (4.6)	1.00	1,572 (1.5)	0.61
1104199000	기타곡물	6,369	3 (0.0)	1.41	569 (8.9)	0.68	7,832	16 (0.2)	2.66	553 (7.1)	0.56
1904201000	곡류조제품	11,885	0 (0.0)	-	86 (0.7)	2.55	15,547	2 (0.0)	2.48	170 (1.1)	2.62

주1) 2018년 미국의 한국산 수입액이 십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을 제시함.  
 2) 괄호 안은 미국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산과 한국산 수입액의 비중(%)을 나타냄.  
 3) 색깔 표시된 세번은 2018년 9월 미국이 대중 보복관세를 부과한 품목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 반면, 중국시장에서 한국산과 미국산이 경합할 가능성은 낮음.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농식품은 대부분 원료(신선) 농산물이기 때문에 비교우위 측면에서 한국산보다는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가진) 다른 국가로 수입이 대체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농식품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우리가 중국에 원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의 벨류체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농식품의 대미시장 수출감소가 국내 농업이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품목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관세는 대부분 철폐된 상태이고 미국산 제품에 고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미국산 고품질 가공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격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

□ 결국, 미국산(중국산)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중국(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무역(중계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들의 경우, 원료가격의 하락(대두 사례)이나 중국시장(미국시장)에서 미국산(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한·미 FTA와 한·중 FTA에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품목의 대미, 대중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표 7 참조)
-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에 따라 수출시장 개척이나 현지유통망 확보, 생산시설 보강 등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이 판단될 수 있으며, 정부도 미중 무역전쟁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이러한 국내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및 신규투자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 7)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원산지 유형 분류 (HS 6단위 품목 수)

분류		한·미 FTA	한·중 FTA	비고
완전생산기준		-	526	원료 농산물
세번 변경 기준	2단위	646	115	냉장/냉동 소고기, 고추장/된장, 김치, 인삼, 스낵류(초코파이 등) 인스턴트 커피 등
	4단위	13	35	캔디, 소스류(식초 등)
	6단위	24	-	해바라기유 등
	결합	21	-	혼합주스, 소주, 담배 등
부가가치기준(45)		-	29	혼합주스 등
선택기준		-	5	코코아분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등
재료중량기준		6	-	아이스트림 및 기타 빙과류 등
합계		710	710	

주: 1) 원산지 유형은 HS CODE 6단위 (01~24류, 03류 제외) 기준으로 분류됨.  
 2) 완전생산기준은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를 말함.  
 3) 세번변경기준이란 생산품과 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HS CODE)가 다를 경우 실질적 변경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i) 2단위 세번 변경기준: 다른 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 생산, ii) 4단위 세번 변경기준: 다른 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 생산, iii) 6단위 세번 변경기준: 다른 호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 생산, iv) 결합: 2단위 세번 변경+4단위 세번 변경, 4단위 세번 변경+6단위 세번 변경, 2단위 세번 변경+6단위 세번 변경 등 복수 재료를 사용해서 해당 제품 생산 등으로 구분됨. 보통 변경기준 세번의 단위 수가 줄어들수록 가공공정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며, 따라서 해당 가공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편임.  
 4) 부가가치기준은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이상인 것을 말함.  
 5) 선택기준은 2단위 세번 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이상인 것을 말함.  
 6) 재료중량기준이란 재료의 무게를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바뀌는 것을 말함.

자료: 한·미 FTA협정문, 한·중 FTA협정문, FTA활용 농수산물품 수출핸드북(농림수산식품부, aT 발간), 관세법령정보포털.

## 03 | 세계 대두시장 파급영향

- 2019년 5월 10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마찰로 2018/19년(밀 유통년도, 9월~익년 8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전년 대비 8.6% 감소한 8,600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9/20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sup>4)</sup>
  - 2018/19년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하나 브라질의 생산량은 4.1% 감소하고, 2019/20년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미국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8.7% 감소하나 브라질은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8년의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콩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19/20년 미국의 콩 재배의 향면적이 줄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나, 브라질 콩 수출은 늘어 브라질 콩 재배의향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19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6.6% 감소하는 반면, 브라질의 수출량은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18/19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3억 6,208만 톤, 수출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억 5,030만 톤으로 추정
  - 2019/20년 세계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3억 5,566만 톤, 수출량은 0.6% 증가한 1억 5,115만 톤으로 전망

〈표 8〉 국가별 대두 수급 추이

단위: 백만 톤

구분		이월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기말재고량
2017/18	세계	96.16	341.54	152.92	152.96	99.10
	미국	8.21	120.07	0.59	57.95	11.92
	브라질	33.21	122.00	0.18	76.18	32.70
	중국	20.66	15.20	94.10	0.13	23.52
2018/19 (추정치)	세계	99.10	362.08	149.56	150.30	113.18
	미국	11.92	123.66	0.46	48.31	27.09
	브라질	32.70	117.00	0.15	78.50	26.00
	중국	23.52	15.90	86.00	0.13	22.20
2019/20 (전망치)	세계	113.18	355.66	150.82	151.15	113.09
	미국	27.09	112.95	0.54	53.07	26.41
	브라질	26.00	123.00	0.20	75.00	27.70
	중국	22.20	17.00	87.00	0.13	22.3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019.5.10.

4) 가장 최근 발표된 USDA의 대두 수급전망치이지만, 여기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은 반영되지 않음.

〈표 9〉 미국의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16		2017		2018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전체 합계(A)	22,641	57,269	21,198	54,582	16,710	45,354
중국(B)	14,201	36,042	12,234	31,684	3,133	8,307
멕시코	1,460	3,626	1,576	3,882	1,722	4,567
네덜란드	738	1,909	776	2,046	1,379	3,784
일본	950	2,465	891	2,318	973	2,573
인도네시아	996	2,349	958	2,275	924	2,308
기타	4,296	10,879	4,763	12,377	8,579	23,815
B/A	62.7%	62.9%	57.7%	58.0%	18.7%	18.3%

주: 미국 HS 코드 1201 단위(1201100000, 1201900005, 1201900010, 1201900090, 1201900095)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한편 회계연도 기준 2018년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량은 831만 톤(미국 대두 수출량의 18.3%), 수출액은 31억 33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74.4%와 73.8% 감소(표 9 참조)
  - 미국의 대중 대두 수출비중(물량, %): ('16) 62.9 → ('17) 58.0 → ('18) 18.3
- 2018년 기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비중은 전체의 18.9%(1,664만 톤)이고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전년대비 48% 감소. 반면 브라질산 대두의 수입비중은 전체의 75.1%(6,608만 톤)으로 수입량은 30%, 수입액은 37% 증가(표 10 참조)
  - 중국의 대미 대두 수입비중(물량, %): ('16) 40.4 → ('17) 34.4 → ('18) 18.9
  - 대두 작기의 특성상, 국제시장에서 11월~익년 3월 기간은 미국산 대두가 주를 이루고, 4월~10월 기간은 브라질산 대두가 큰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산 대두가 수확된 이후인 11월~익년 3월에도 중국은 브라질산 대두수입을 증가해 왔음.<sup>5)</sup>
  - 한편,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미국산 콩에 대해 이물질이 1% 이상 혼합된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검역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표 10〉 중국의 국가별 대두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구분	2016		2017		2018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체 합계(A)	34,017	83,229	39,736	95,530	38,088	88,032
미국(B)	13,753	33,657	13,959	32,853	7,065	16,642
브라질	15,587	38,037	20,996	50,929	28,850	66,085
캐나다	601	1,455	886	2,049	765	1,792
아르헨티나	3,238	8,014	2,684	6,583	620	1,464
우루과이	698	1,661	1,034	2,572	516	1,199
기타	140	405	177	544	272	850
B/A	40.4%	40.4%	35.1%	34.4%	18.5%	18.9%

주: 1) 중국 HS 코드 1201 단위(12011000, 12019000, 12019010, 12019020, 12019030, 12019090)를 기준으로 계산함.

2) 〈표 9〉와 〈표 10〉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통관시점이 다르고, 중국의 수입실적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단순 환적되어 수입된 실적도 포함됨(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5) 미국은 5월에 파종하여 9월~11월 사이 수확하고, 브라질은 10월에 파종하여 이듬해 3월부터 수확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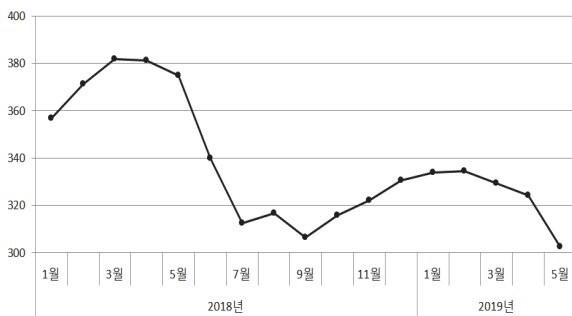


□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2018년 3월부터 대두 선물가격은 미중 무역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였으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두가격은 하락 안정세가 지속됨.

-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부과 발표로 2018년 7월 대두 선물가격은 급락하였고, 이후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
  - 작년 하반기에는 중국이 이미 구매를 했던 미국산 대두 계약물량을 취소함과 동시에 수입선을 변경한 영향으로 낮은 가격이 유지됨.
- 이후 브라질 대두의 생산량 감소 우려, 12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 협상타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계약 체결 등으로 올해 초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9년 5월 13일 협상타결이 무산되면서 다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톤당 290달러까지 하락)

〈그림 1〉 대두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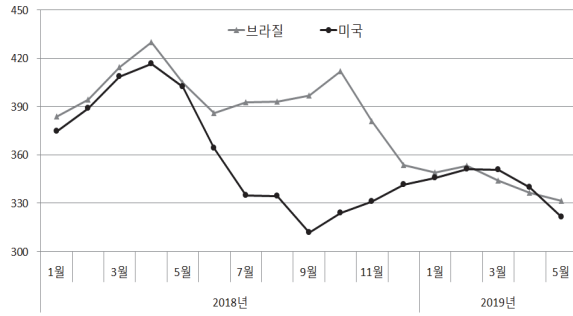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주: 각 월별 선물가격은 해당 월의 일자별 근월물 선물가격의 평균임.  
자료: 시카고 선물거래소(CBOT).

〈그림 2〉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FOB 추이

단위: 달러/톤



주: 미국은 걸프항, 브라질은 파라나과항 기준 수출가격임.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CG)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대두 수입선 변화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브라질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침.

- 2018년 6월 중순 이후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수출가격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가 연말부터는 다시 수렴하는 추세를 보임.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브라질 수출가격은 상승한 반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미국 수출가격은 하락
- 2018년 연말부터는 다시 미국 수출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됨. 이는 2018/19년산 미국산 대두(신곡) 출하와 낮은 가격으로 인해 중국 외 주요 수입국의 미국산 대두 수요가 늘고, 2019년 초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중국이 대규모의 미국산 대두 구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임.
- 반면, 브라질 수출가격은 약세로 전환됨.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돼지 생산감소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대브라질 대두수입이 당초 예상만큼 확대·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겨울동안 지속된 고온건조한 날씨로 브라질 대두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수확을 앞두고 날씨가 개선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어 수출가격은 약세를 지속함.

□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저렴해진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려왔는데, 채유용과 대두박의 경우 올해 가을 국내 도착분에 대한 구매가 완료된 상태임.

- 채유용 대두는 2017년 기준, 남미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47.9%, 미국산 수입비중이 37.6%였으나, 2018년에는 남미산이 47.1%, 미국산이 52.8%로 미국산 비중이 높아짐.
  - 수입단가는 미국산이 2017년 톤당 433달러였으나, 2018년에는 424달러로 2% 하락
- 대두박의 경우 2017년에 대부분을 남미(95.5%)에서 수입해 미국산(0.2%) 수입비중은 미미했으나, 2018년에는 남미산 수입비중이 92.5%로 조금 낮아진 반면, 미국산 비중은 0.8%로 소폭 상승
  - 미국산 대두박 수입단가는 2017년 톤당 544달러에서 2018년 459달러로 약 16% 하락
- 우리나라는 대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가격의 하락세가 유지될 경우, 대두를 활용한 식품가격의 하락, 관련 가공식품의 수출확대, 돼지 사료비용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대두를 포함한 국제곡물 가격의 변동성·불확실성 증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전파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표 11〉 우리나라의 대두 용도별·국가별 수입비중 및 수입단가 추이

단위: 천 톤, %, 달러/톤

채유용 대두	2017			2018			2019 (1~4월)		
	수입량	비중	수입단가	수입량	비중	수입단가	수입량	비중	수입단가
전체	1,034.2	100.0	419	1,001.9	100.0	433	270.3	100.0	407
남미	495.9	47.9	412	472.2	47.1	442	0.4	0.1	446
미국	388.5	37.6	433	529.1	52.8	424	269.9	99.8	407
기타	149.8	14.5	407	0.5	0.0	668	0.1	0.0	578
사료용 대두박	2017			2018			2019 (1~4월)		
	수입량	비중	수입단가	수입량	비중	수입단가	수입량	비중	수입단가
전체	1,705.4	100.0	382	1,867.0	100.0	412	255.0	100.0	436
남미	1,628.6	95.5	374	1,726.8	92.5	405	223.5	88.0	434
미국	4.1	0.2	544	15.6	0.8	459	12.7	5.6	391
중국	13.2	0.8	561	46.4	2.5	490	6.9	2.3	505
기타	59.6	3.5	538	78.1	4.2	502	11.9	4.1	495

주: 2019년은 1~4월까지의 집계치임.

자료: 관세청.



## 04 | 미중 돼지고기 교역 변화와 국내 수급 영향

50%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ASF로 인해 2019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은 증가 추세

□ 중국이 50%의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결과, 2018년 미국의 돼지고기 대중국 수출량은 전년대비 32.5% 감소(27.6만 → 18.6만 톤)

- 2017년 미국 돼지고기 수출의 11.3%를 점유했던 중국은 2018년에는 7.7%로 감소
  - 반면, 미국의 對한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같은 기간 17.8만 톤에서 24.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시장의 비중도 3%p 증가(7.3% → 10.3%)
- 그러나 최근('19년 1~3월) 미국의 대중국 수출량은 다른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크게 증가함. 이는 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 외에도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의 대세계 수입(미국 포함)이 증가했기 때문임.

〈표 12〉 미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2016		2017		2018		2019(1~3월)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멕시코	1,380 (24.0)	770 (33.2)	1,527 (24.5)	839 (34.3)	1,308 (21.8)	809 (33.4)	255 (18.3)	180 (30.3)
일본	1,553 (27.0)	388 (16.8)	1,627 (26.1)	394 (16.1)	1,623 (27.0)	396 (16.3)	376 (26.9)	93 (15.7)
한국	363 (6.3)	137 (5.9)	473 (7.6)	178 (7.3)	661 (11.0)	249 (10.3)	153 (11.0)	58 (9.9)
캐나다	756 (13.1)	195 (8.4)	746 (12.0)	198 (8.1)	704 (11.7)	192 (7.9)	185 (13.3)	53 (8.9)
중국	582 (10.1)	336 (14.5)	489 (7.8)	276 (11.3)	330 (5.5)	186 (7.7)	90 (6.5)	60 (10.1)
기타	1,123 (19.5)	490 (21.2)	1,371 (22.0)	564 (23.0)	1,388 (23.1)	592 (24.4)	335 (24.0)	149 (25.1)
전체	5,757	2,317	6,231	2,448	6,015	2,424	1,394	593

주: 국내에 반입되는 돼지고기의 HS코드(6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함. 괄호( ) 안은 국가별 수출액과 수출량 비중을 나타냄.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www.gtis.com/gta>, 2019년 5월 15일 검색.

□ 중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2017년 23.4%에서 2018년 12.2%까지 11.2%p 감소한 반면, EU산 돼지고기는 2017년 59.9%에서 2018년 64.2%까지 4.3%p 증가

- 중국은 주로 EU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2018년 EU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38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4.2%였으며, 미국산 수입량은 26.3만 톤으로 12.2%를 차지

〈표 13〉 중국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2016		2017		2018		2019 (1~3월)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EU	3,574 (61.7)	1,972 (63.7)	2,534 (57.9)	1,495 (59.9)	2,300 (63.7)	1,380 (64.2)	653 (68.0)	376 (63.4)
미국	1,351 (23.3)	645 (20.9)	1,162 (26.5)	584 (23.4)	473 (13.1)	263 (12.2)	65 (6.8)	23 (3.9)
캐나다	536 (9.3)	316 (10.2)	463 (10.6)	300 (12.0)	417 (11.5)	281 (13.1)	141 (14.7)	89 (15.0)
브라질	193 (3.3)	81 (2.6)	112 (2.6)	49 (2.0)	317 (8.8)	150 (7.0)	67 (6.9)	32 (5.4)
칠레	139 (2.4)	80 (2.6)	103 (2.3)	68 (2.7)	99 (2.7)	75 (3.5)	32 (3.4)	22 (3.7)
기타	1 (0.0)	0 (0.0)	4 (0.1)	2 (0.1)	4 (0.1)	3 (0.1)	2 (0.2)	51 (8.7)
전체	5,794	3,093	4,379	2,497	3,610	2,152	962	593

주1) 국내에 반입되는 돼지고기의 HS코드(6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함. 괄호( ) 안은 국가별 수출액과 수출량 비중을 나타냄.  
 2) 〈표 12〉와 〈표 13〉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통관시점이 다르고, 중국의 수입실적에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단순 환적되어 수입된 실적도 포함되기 때문임(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www.gtis.com/gta>, 2019년 5월 15일 검색.

□ 돼지고기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겹치면서 세계시장의 수급 및 교역의 불확실성은 증가된 양상

- 통상마찰 전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의존도는 10% 내외로 크지 않은 편인데 반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비중은 20~25%를 차지해 중국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예상되었음.
  -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는 냉동설육(020649)과 같은 저가육 위주로 수입해 온데다, 돼지고기 수입선을 EU와 남미로 전환함으로써 관세부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왔음.
  - 하지만, ASF로 인해 자국 내 돼지고기 공급부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
- 한편,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일부 미국산 냉동설육(020649)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표 14 참조).

〈표 14〉 미국·중국·홍콩의 돼지고기 교역동향

단위: 톤

HS6	품목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020649	Offal Of Swine Except Livers Edible Frozen 돼지고기 식용설육 (기타/냉동)	미국의 대중국 수출 (A)	77,974	151,623	147,450	80,880
		미국의 대홍콩 수출 (B)	93,547	130,555	139,391	108,634
		(A)+(B)	171,521	282,178	286,841	189,514
		중국의 대미국 수입	140,024	424,152	416,322	177,059

주: 돼지고기 19개 세번 중에서 미국의 수출량과 중국의 수입량 간 차이가 가장 큰 냉동설육(020649)에 한하여, 미국의 수출량과 중국 및 홍콩의 수입량 실적을 비교함.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www.gtis.com/gta>, 2019년 5월 15일 검색.

- USDA에 의하면, 2018년 미국은 세계 돼지고기 생산의 10.6%인 1,194만 톤을 생산하고, 소비의 8.7%인 975만 톤을 소비하며, 266만 톤을 수출(세계 수출량의 31.5%)
  - 미국은 사육두수 증가로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2.9% 증가.
  - 생산증가로 미국 내 돼지가격이 약세인 가운데 무역마찰이 장기화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했지만, 다른 국가로 수출이 증가해 2018년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4.3% 증가
- 중국은 2018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1억 1,308만 톤)의 47.8%인 5,404만 톤을 생산하고, 세계 수입량(790만 톤)의 19.7%인 156만 톤을 수입하여, 5,539만 톤을 소비(49.3%)

〈표 15〉 미국과 중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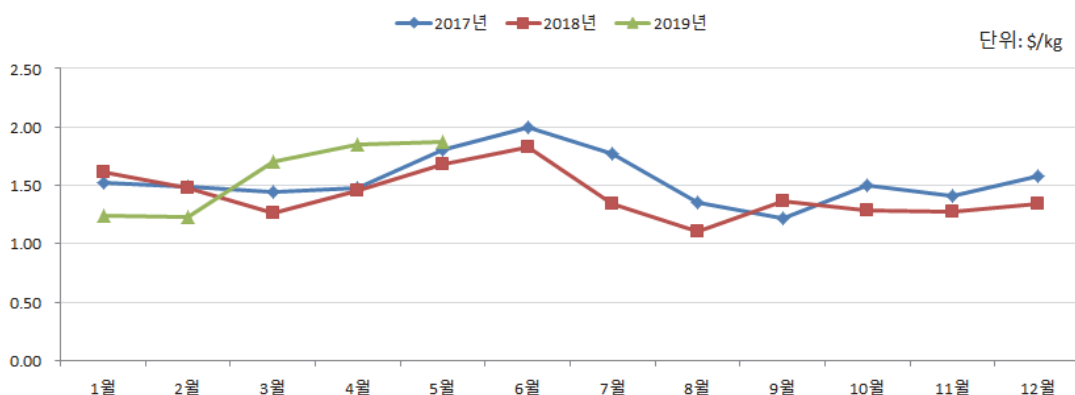
구분		중국			미국			세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공급	생산	54,255 (48.7)	54,518 (48.6)	54,040 (47.8)	11,320 (10.2)	11,611 (10.4)	11,942 (10.6)	111,394	112,114	113,081
	수입	2,181 (27.3)	1,620 (20.6)	1,561 (19.7)	495 (6.2)	506 (6.4)	473 (6.0)	7,981	7,883	7,906
	소계	56,436 (47.3)	56,138 (46.8)	55,601 (46.0)	11,815 (9.9)	12,117 (10.1)	12,415 (10.3)	19,375	19,997	20,987
수요	소비	56,245 (50.6)	55,930 (50.1)	55,398 (49.3)	9,476 (8.5)	9,542 (8.5)	9,749 (8.7)	111,068	111,642	12,472
	수출	191 (2.3)	208 (2.5)	203 (2.4)	2,376 (28.4)	2,554 (30.7)	2,663 (31.5)	8,355	8,308	8,446
	소계	56,436 (47.3)	56,138 (46.8)	55,601 (46.0)	11,815 (9.9)	12,117 (10.1)	12,415 (10.3)	119,423	19,950	20,918

주: 지육 기준으로 집계된 데이터이며, 괄호( )는 세계의 생산, 수입, 소계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2019.4

□ 미중 무역마찰과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돼지 선물가격은 1.42달러/kg으로 전년보다 8.1% 하락

- 가격 약세는 2019년 2월까지 지속되었으나,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3월부터는 전년 대비 강세로 전환되었으며, 5월은 1.88달러까지 상승

〈그림 3〉 돼지고기 선물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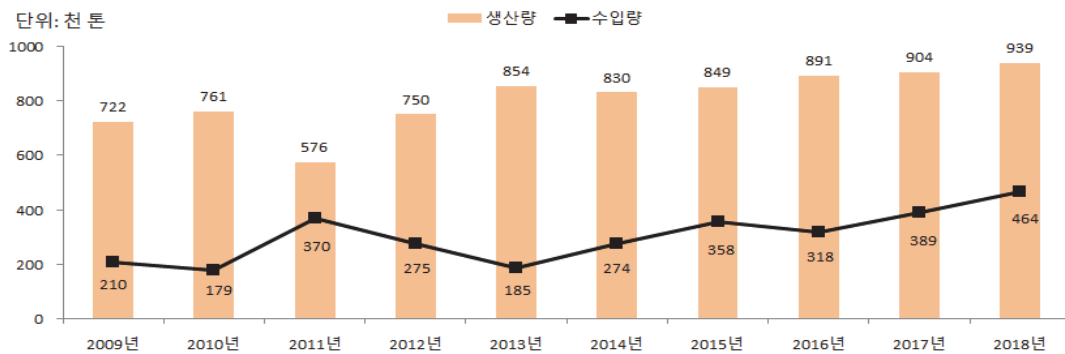


주: 각 월별 선물가격은 해당 월의 일자별 근월물 선물가격의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2019년 5월 15일 검색.

□ 올해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기수입된 재고와 국내 생산증가 외에도 중국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으로 전년보다 16.7% 감소한 38.6만 톤에 이를 전망(KREI, ' 19.4.)

-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1,140만~1,160만 마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도축두수는 1,770만 두로 전년보다 2.0% 증가, 돼지고기 생산량은 95.2만 톤으로 전망
- 2019년 4월까지 16만 4천 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었으며, 이 중 앞다리가 6.7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삼겹살이 6만 톤, 목살이 2.2만 톤이 수입됨.<sup>6)</sup>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가 유효할 경우 올해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음.

〈그림 4〉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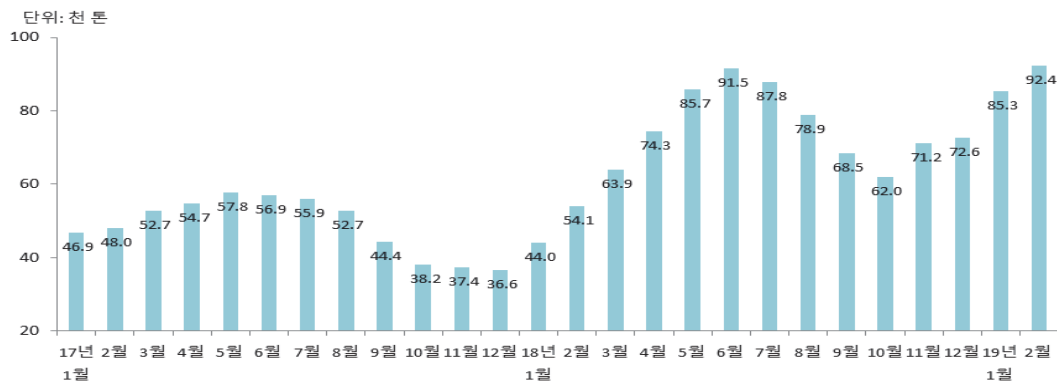
주: 2018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망치(도축마릿수 × 정육율(%))로 계산하였으며, 수입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사용함.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수급 및 가격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표 16〉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동향

구분	미국	독일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캐나다	전체	미국 비중(%)
2016	106,089	59,352	41,779	22,179	14,409	13,093	318,498	33.3
2017	135,085	80,152	35,145	21,779	22,650	14,706	369,218	36.6
2018	184,639	83,925	55,979	25,965	24,699	22,480	463,521	39.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5〉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재고 동향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6)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EU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2018년 기준 미국이 전체 수입량의 39.8%를 차지함. 미국에서는 냉동 앞다리가 많이 수입되며, EU에서는 냉동 삼겹살이 주로 수입됨.